

영암 자동차경주장,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장소로 탈바꿈

청소년 수련시설, 스포츠파크 조성
케이블카 등과 연계 관광자원 확충

영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청소년·가족 단위 복합문화단지로 변신을 시도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F1 자동차경주장의 유휴시설·공간 활용 극대화 및 모터스포츠 프로그램 강화, 관광자원 확충 등을 위해 168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시설, 자동차복합문화공간, 레저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경주장내 경주팀원들이 머물렀던 팀빌딩과 패독(paddock) 빌딩을 리모델링해 유스호스텔과 직업체험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F1 팀 빌딩은 영암호를 배경으로 조성된 만큼 숙박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

이 이뤄지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을 위해 44억원을 내년도 예

산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한다. 이곳에는 자전거 도로·트래킹코스, VR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복합문화공간과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전기바이크 등을 탈 수 있는 키즈 드라이빙 체험시설, 드론 축구장을 갖춘 레저스포츠파크, 모터레포 츠게임, 전기카트체험시설, 도시숲 등이 들어선다.

또 모터스포츠 주변 확대를 위해 도민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능력 협회 기업연수, F3 국제대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제자동차경주장과 목포 해양케이블카 및 주변 골프장

등을 연계한 신규 관광자원 확충 등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달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심의에 들어간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복합문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F1경주장이 자동차경주와 레이서 등 전문가들의 활용도는 정점을 찍고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 가족단위 일반인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해 머무는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metroseoul.co.kr

인천 미추홀구 뉴딜사업 선정... 1200억 규모

인천 미추홀구는 용현2동과 도화1동 일원이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로 미추홀 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추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용현동 568-83일원인 ‘용현2동 비룡공감2080’과 도화초등학교 일원인 도화1동 수봉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전국 낙후 지역 500여 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미추홀구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에 돌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과 인천도시공사와 협력을 통해 적합한 재생 방향을 설정했다.

또 올해 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업대상지인 용현2동과 도화1동 지역은 각각 일반근린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168억원, 수봉마을은 1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지역은 옛 터미널 상권 쇠퇴와 공간단절로 구도심 낙후지역이고, 도화1동 수봉마을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등으로 단절된 지역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10일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리고 있는 황룡강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성군

오늘의 날씨

10월 11일(금)
음력 : 9월 13일

수도권 날씨
14~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9/25
동두천 10/25
가평 8/25
양평 10/25
용인 14/24
평택 11/25
백령도 16/21
파주 10/25
가령 8/25
양평 10/25
용인 14/24
평택 11/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현장 민원 청취할 것”... 기업별 공무원 배치

광양시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시행
10인 이상 기업에 간부공무원 매칭

광양시는 지난 3분기 중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해 이를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는 지역 내 등록된 10인 이상 275개 기업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1:1 매칭하고 분기별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번 3분기에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역 내 기업의 피해 동향을 파악하고 시승격 30주년 동침 안내와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집중 홍보했다. 활동기간 동안 ▲태풍 이후 초남공단 주변 방역지원 ▲울촌산단에서 광양항 방면 도로(교량) 설치 ▲회사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열악한 인프라 해결과 생활민원 등 현장답변을 포함해 총 12건의 건의가 이뤄졌다.

이들 건의 내용은 시 관계부서 8곳과



광양시 3분기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기업민원 해결.

/광양시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양시 윈스톱 기업민원 해결 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기업에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나 정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기업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일자리 넘치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시책을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건의사항 59건을 수렴하고 그 중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및 주차단속, 인력 및 자금난, 기술사업화 등을 포함한 49건은 해결했다. 이 밖에도 광양시 생애주기별 정책 홍보와 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을 광양에 전입 유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jacecom@

전남 미제사건 1.8만건... 프로파일러 ‘0명’

2018년 이직 후 현재까지 공식 전국에 배치된 프로파일러 35명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에 범인 이춘재가 검거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크지만, 전라남도에 배치된 경찰 프로파일러는 단 한 명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에 배치된 프로파일러는 3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5년 프로파일러 첫 선발 당시 전국 17개 지방청에 프로파일러 2인 1조를 배치할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전북경찰청,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최

초 목표인 2인에 미달한 1명의 프로파일러만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남청이 현재 채용한 프로파일러는 0명이었다.

반면 전남도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1만 8810건에 이르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통한 사건 해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간별로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지 3년 초과 5년 이내인 미제사건은 1만 3146건이었고, 3년 이내의 미제사건은 9075건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2018년 초까지 근무하던 프로파일러가 이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1만 9000건에 달하는 미제사건뿐만 아니라 전남 내 다양한 중요범죄 해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인천 남동구 경로당 한방진료 만족도 91%

인천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진료가 도움이 됐으며 재이용하겠다는 이용자도 91%인 것으로 나왔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남동구에서 한방 전문 의료 인력인 한의사와 간호사를 구에서 별도 채용, 진료반을 구성해 지역 내 희망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한방진료로 침·부항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